

지피지기(知彼知己)와 소통(疏通)

Knowing yourself and your opponent and communicating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하거나 받는 경우가 있고 동일 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 서로 간의 의견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듯 개개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지만 사회에는 서로 간의 약속이 있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속, 즉 사회적 규범을 따라야 하고, 그 규범 중 하나가 법률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부분 이외에 '상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며 그에 따른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식이라는 부분은 일정하고 동일하게 인정되기는 힘들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개인적 사고 성장의 배경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상식의 적용을 기대하는 것 역시 어렵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다보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을 간혹 본다. 무언가 불합리한 부분을 호소하는 민원인, 그 시위자의 판단기준에 불합리한 부분을 제공한 피민원인, 그리고 원인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해줄 수 있다고 민원인이 기대하는 국회의사당 내의 누구, 이 세 사람 중 적어도 두 명은 동일 사안에 대해 적용하는 상식이 다르며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본인들이 손해 보는 결과로 종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당사자 각각의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소재로 삼고 있는 건축이라는 것은 항상 클라이언트(발주자, 건축주 등으로 표현되지만 광의(廣義)의 의미로는 실제 해당 건축물을 체험하고 사용하는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다가 존재하게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협력관계를 형성, 과업을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하나의 결과물으로써 건축물이 완성된다. 이러한 건축물(결과물)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의 경우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측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공성을 간과할 수 없는 건축사의 도리와 공공성보다는 개인적인 수익성을 더 추구하게 되는 현실 안에서 건축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건축사의 시각과 클라이언트의 시각이 상당 부분 다르다는 것, 이것에 대하여는 모두가 동의하리라 믿으며 이러한 시각차를 극복하는 것을 바로 서로 간의 소통(疏通)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데 건축사에게 있어 그 과업 하나 하나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경제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부업이 아닌 주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은 건축사사무소 내 직원들과 그 부양가족들 모두에게 역시 해당된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 결국 건축사들은 나름대로 지금의 상황을 호소할 것이고,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나름대로의 이득을

민원인과 회원 간의 관계, 회원과 회원 간의 관계, 회원과 협회 간의 관계, 협회와 협회 간의 관계, 협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 등 건축사와 본 협회는 수많은 거미줄 같은 관계 속에서 위치하고 있다. 특히 건축사회원과 본 협회 간의 관계는 지극히 상호 의존적이며 그 생명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회원과 협회 간의 소통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며, 회원 하나하나가 협회의 일부가 아닌 협회 그 자체라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고, 협회는 각각의 회원들의 든든한 구심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협회는 회원들의 알 권리와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회원의 의견들을 수렴, 회원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회원은 습득된 정보를 이용, 사회적 규범과 일반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 스스로가 노력하는 협회의 서포터가 되어야 한다.

위하여 건축사사무소의 현실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지난 2월에 ‘전국 건축사 쫓기대회’도 국민과 건축사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지적되었던 것 같다. 주변 누구에게 확인해 봐도 건축사라는 고소득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욕심 많은 대형 건설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가 주장하고 외쳤던 건축문화라는 것이 지금껏 개발 시대를 달려온 일반 국민에게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 쯤으로 다가갔던 것이었고, 우리의 생존권 역시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허울 좋은 자리매김 탓에 대중의 관심을 받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대중들의 관심대상 혹은 건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전문가인 건축사 수준으로 생각하며 제대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대국민 접근 방식의 미숙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대방을 너무 몰랐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자주 언급되는 ‘트렌드’라는 용어는 10년 아니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문화 혹은 예술 등 특정 분야에서나 언급되었던 생소한 용어였지만 최근에는 신문의 각종 섹션 등을 통해 자주 등장하고 방송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에서 언급되면서 현 시대에서 다루어지는 가치판단의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조차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열린 사고와 정제된 흡수력을 갖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덕목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격언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어떤 어려움도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으며,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어야 소통(疏通)할 수 있다.

민원인과 회원 간의 관계, 회원과 회원 간의 관계, 회원과 협회 간의 관계, 협회와 협회 간의 관계, 협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 등 건축사와 본 협회는 수많은 거미줄 같은 관계 속에서 위치하고 있다. 특히 건축사회원과 본 협회 간의 관계는 지극히 상호 의존적이며 그 생명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회원과 협회 간의 소통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며, 회원 하나하나가 협회의 일부가 아닌 협회 그 자체라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고, 협회는 각각의 회원들의 든든한 구심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협회는 회원들의 알 권리와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회원의 의견들을 수렴, 회원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회원은 습득된 정보를 이용, 사회적 규범과 일반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 스스로가 노력하는 협회의 서포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의 바탕은 “지피지기(知彼知己)”를 위한 정보의 원활한 “소통(疏通)”이 기본이 됨을 회원과 협회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